

지역 매 아리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 취업 솔루션' 운영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구직 여성들을 돕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새일스타트, 5일)과 심화과정(새일플러스, 3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의 면담을 통해 적합한 과정을 결정하게 된다.

취업준비교실 집단상담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실시된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 발급,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2회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중의 교육비와 중식, 간식 등이 무료이며 수료 후 선물 등이 주어진다.

특히 집단상담을 수료한 참여자는 201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단체급식조리사, 시니어 드립 전문강사, 4차 산업 코딩·드론 융합교육, 기업맞춤 전문 실무자) 대상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첫 일정은 이날 13일부터(심화과정) 운영되며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으로, 기본과정은 15명, 심화과정은 1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취업의 자신감과 다양한 구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은 오늘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을 확대한다.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사자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사자, 유독성물질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류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기절정 90년대 씨름장 방불

정읍시, 설날장사 씨름대회 성료... 박진감 넘치는 경기 등 볼거리 · 즐길거리 제공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씨름대회에는 1만1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민속 씨름에 대한 정읍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최초 공동 등재 이후 첫 대회이자 정읍시에서 개최한 최초의 장사 씨름대회이다.

이날 현장은 민속 대명절인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으로 인기절정이었던 8~90년대의 씨름장을 방불케 했다.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다.

장사는 임태혁(수원시청)선수, 태백이 출전한 가운데 정읍시청 소속 단종미(인씨름단)도 11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 체급별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1일 남자부 태백급 예선을 시작으로 태백장사 결정전, 금강장사, 한라장사 그리고 5일에는 백두장사 결정전이 차례로 열렸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에는 여자부 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 개인전과 단체전이 더해져 한바탕 힘자랑과 함께 재미를 더했다.

남자부 백두장사 타이틀은 오정민(울산동구청) 선수, 한라장사는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선수, 금강

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정읍시를 알리고, 스포츠로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3일 개회식에 참석하고 우승자를 시상했으며 대회기간 중에 틈틈이 대회장을 찾아 관중석을 가득 메운 씨름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참가선수와 대회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내장산을 노래한 가수 김용임, 소명 등 인기가수 등이 출중한 공연과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으로 대회장을 찾은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사랑의 온도 높이는 헌혈운동 전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청 광장에서 실시되는 헌혈운동은 사랑의 온도 높이기 일환으로 추

진되며, 시청 과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정읍헌혈의 공간(구, 시기동주민센터, 이하 헌혈의 공간)을 운영하여 헌혈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혈의 공간에서는 헌혈 참여 권장과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자에게는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와 간기능 검사 등의 7종의 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대표 관광지 석정온천지구, 생태휴식공간으로 변모

군, 사업비 5억원 전액 국비 확보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대표 관광지인 석정온천지구 호수가 가시연꽃 서식처 조성 등 군민 생태휴식 공간으로 꾸며진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생태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공모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역에 최종 선정(전국 20개소 선정)돼 사업비 5억원(전액 국비)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민간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되돌려 받아 생태환경 복원에 사용한다.

고창군은 호수주변 식생을 복원(가시연꽃, 소나무숲, 버드나무숲, 자생종 초화류 식재)하고 가시연꽃 학습장을 만들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로를 비롯해 각종 조형물과 놀이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선비문화 체험장 '태산선비원' 건립 박차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칠보면 무성리 일원에 '최치원과 정극이의 태산선비원'을 조성하여 태산선비문화권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장소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선비문화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활용될 태산선비원은 42,492㎡ 부지에 연면적 3,000㎡의 규모로 선비체험관,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으로 조성된다.

또한 다양한 육구의 관광객에게 지역적 특화와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선과 정읍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관광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가 정월 초사흘날인 7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 기원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 대리마을서 열려

풍어(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이런 염원들을 때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풍어제가 정월 초사흘날(음력 1월 3일)인 7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인 띠벳놀이는 170여 년 전부터 위도주민들이 임금님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을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신과 행복을 적은 띠지와 오색기, 허수아비들과 어선 모양의 띠배를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이다.

위도 띠벳놀이는 이른 아침 대리마을 풍물패의 띠벳굿(오방진굿, 풍년굿)과 함께 동편 당산제를 올리고 당젓봉 정상에 원당(소원을 비는 곳에 올라 제물을 진설하면서 시작된다.

원당에 오르면 화주 이준순 씨의 독축을 시작으로 무녀 안병희 씨의 산신굿, 성주굿, 손님굿, 지신굿, 서낭굿, 깃대 등 무탈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풍물패(상쇠 장춘석)의 농악과 함께 진행된다. 원당에서 굿과 제사를 지낸 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바다가 보이

는 마을 앞 부두에 도착하게 되며 이때 원당에 오르지 않은 마을 주민들은 띠배와 제웅(허수아비)을 만들게 된다.

이후 마을의 중심이 되는 주산을 중심으로 동편 용왕밥 던지기, 동편 당산제, 북편 주산 신행제, 서편 당산제, 용왕밥 던지기, 우물굿 등을 하며 주산돌기를 마친 뒤 마을 앞 부두에 도착, 용왕굿을 하며 신명나 한판을 벌인다.

용왕굿을 마친 뒤 띠배는 모선과 연결해 서해 먼 바다로 띄워 보내는데 이때 농악에 맞춰 술배를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이다.

모선이 바다 가운데서 띠배를 떼어 놓고 돌아오면 띠벳놀이 공식행사는 마무리되고 주민들은 화합을 다지며 여흥을 즐기는 대동놀이가 밤새도록 이어진다.

한편 위도 띠벳놀이는 지난 1978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리마을 당제의 한 과정인 '띠배보내기'로 출전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